

'호남제일고' 미래 이끄는 융합형 인재 키운다

남형진 기자 | 승인 2024.10.30 15:00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의 요람 학교법인 경초학원(이사장 김관수) 호남제일고!

호남제일고(교장 김영표)는 전북 지역의 명문고등학교로 명성에 걸맞는 대입 실적을 자랑하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6년 동안 서울대 12명, 의학 계열 64명, 연세대 14명, 고려대 26명, 전북대 및 거점 국립대 매년 100명 이상 진학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호남제일고는 삶과 연계한 깊이 있는 학습과 탐구 능력을 기르는 교육으로 융합형 인재를 배출 해왔다. 호남제일고가 명문고로서 위상을 얻게 된 교육 환경 및 교육 프로그램 등 핵심 요인들을 살펴본다.



#개인별 맞춤형 학업 역량 강화 교육

호남제일고는 학습자의 학습 수준에 맞는 다양한 학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수생 심화 학력 향상 프로그램', '맞춤형 학력증진 프로그램', '수능 대비 맞춤형 프로그램', '독서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학습 참여를 이끌고 있다.

CBT방식을 통해 학생들의 성취도를 측정하고, 학습자의 수준별 필요와 향상 목표도를 체계화하여 학습자의 요구수준에 맞는 교수학습과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우수생 심화 학력향상 프로그램'은 상위권 학생들에게 평가원 및 수능 기출문제의 개념 및 응용 심화 문제를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개별 피드백을 해주어 최상위권 대학과 의학계열 합격이라 우수한 결과로 이어지게 한다. 또한, 중하위권 학생들의 학습동기 부여와 성취도 향상을 위해 '맞춤형 학력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참여 희망자를 4인 이하 소수 모둠으로 나뉘어 국, 영, 수, 사, 과 주요 교과보충 42개 강좌가 운영되고 있다. 모든 교과에서 독서 수행평가가 진행되며, 1학년에서 3학년까지 독서탐구노트 작성으로 쓰기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창의적 독서 탐구 활동으로 인문, 사회, 과학 등 주제별 독서 그룹을 운영하고 독서 토론 한마당을 통해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토론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과정 운영

호남제일고는 5년 전부터 전북 지역 고교학점제 준비학교로 2025년 전면 적용되는 고교학점제에 대비해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을 하고 있다.

다양한 교과특성을 반영한 교과목 개설과 5회 이상의 수요조사로 학생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한다. 전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성을 갖춘 본교의 고교학점제 컨설턴트 교사들이 교육부와 대학이 지향하는 융합형 인재를 기르는 데 앞장서고 있다.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을 위해 성격심리유형검사, 자기주도학습 자기진단 프로그램, 창업과 스타트업, 기업가정신에 대한 이해, 전공학과탐색 프로그램, 셀프리더십 함양, 4차산업의 이해, 이미지메이킹의 이해, 스피치 교육 등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돕고 있다.

'학생 중심 수업 주간'에 자율적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전교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과 심화 및 주제 융합형 프로젝트 수업에 참여하도록 한다. 2022년부터 매년 1학기 말 일주일간 실험, 답사, 부스, 제작, 설계, 토론, 스포츠, 음악, 미술, 시활용 창작 등의 분야에서 55~57개의 프로젝트 수업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러한 학생들의 활동은 생기부에 기록되어 대입에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호평받고 있다.



한편, 호남제일고는 전북 교육청 선정 AI 정보교육 중심학교로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인공지능 기반 동아리 융합 활동, SW/AI 캠프, SW/AI 창작 공모전, AI 전문가 초청 특강, 독서를 통한 인공지능 윤리 교육 등을 실시하여 디지털 역량을 갖추도록 한다.

#공동체 역량을 갖춘 공감 교육으로 글로벌 리더로 성장

호남제일고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호제 가족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아침 등굣길에 교사가 학생을 맞이해 격려하고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나누며, 하교 후 가족과 함께 따뜻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매해'졸업생 초청 재능기부 멘토링'행사를 한다. 의학, 교육, 건축, 과학, 방송, 금융, 경영 및 경제 등의 다양한 분야에 졸업생이 모교를 방문해 후배들의 멘토가 되어주는 후배사랑 릴레이를 지속하고 있다.



매해 AI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북토크를 하고 강연을 듣는다. 전문가의 저서를 읽고 질문을 작성하고 저자와 대화를 나누는 상호작용적인 활동을 장려한다.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 창의 융합동아리는 방학 기간 중 AI로봇 캠프를 운영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역량을 키우고 있다.

또한 인문 과학 콘서트를 통해 책 속의 과학적 원리를 탐구하면서 문제 상황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과학적 탐구 능력 신장에 힘쓴다.

이외에도 합창단, 스포츠클럽 운영으로 학생들의 심신의 성장을 돕고 있다. 호남제일고 simile(씨밀레) 합창단은 전국고교합창 경연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할 정도의 실력으로 사회봉사활동도 하고 있다. 스포츠클럽은 배구, 축구, 농구, 배드민턴 등 분야에서 활동하는 동아리로 전북 교육감배 스포츠 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24년 여름에는 GGS(그레이트 지오그래픽 소사이어티) 등과 협업하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주최하는 국제교류행사에 온 여러나라 학생들을 맞이하여 환경문제 대한 대

화의 장을 펼치기도 했다.

공감 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한 인성 교육이라는 모토 아래 호남제일고는 공동체 역량을 키우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타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사회적 편견이 만연한 사회에서 공감은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인지적 과정 후에 나타나는 자연스런 감정의 과정으로 사회혁신에 중요한 아이디어와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교육철학으로 학생들에게 창의적 도전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교사의 열정이 가득한 호남제일고

호남제일고는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를 통한 과정중심평가를 실현한다. 특히 교사들의 수업 명품화 실현으로 학습자의 학습 의욕을 높이고, '교사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해 수업을 나눔으로써 수업 전문성을 높인다. 이는 80% 이상 참여율을 보이는 학생 맞춤형 선택형 방과후 활동 수업으로 이어져 학생의 자기 역량 관리에 도움을 주고 있다. '전북교육청 대입지원단 교사' 및 '대입 평가 문항 출제 전문 인력 교사'를 다수 확보함으로써 대입 전형의 최적화된 입시 전략 및 내신 평가 문항의 전문성을 구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에듀테크 기반 교사 학습 공동체'를 조직하여 미래 교육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가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남형진 기자



남형진 기자